

연대체 모임.

유쾌한 것 신나는 여성들을 만나다

발신: 기분좋은 총여학생회

수신: 연세여성주의자의 날에 모이신 여러분들

연세 여성주의자들간의 끈적한 연대를 위하여 - 자치단체 연석회의(가)의 부활을 제안합니다!

(3·8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

들어가며

99년도에 자치단체연석회의가 해소된 이후, 각각의 자치단체들¹⁾은 독자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대부분의 활동이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향이 생기면서 자치단체들의 활동이 부진해지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모임에 누가 있고,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도 공유되지 못해왔습니다. 이러한 소통부재는 총여학생회를 비롯해 각각의 자치단체들의 활동의 폭을 스스로 좁혀온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치단체연석회의(가)의 부활을 통해, 기본적인 상호 정보의 공유에서부터 각각의 활동의 폭을 강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연석회의의 부활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따로 또 같이”가는 관계가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의 경우 활동의 주제로 삼고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소속단위를 기반으로 한 특수한 생활배경으로 활동의 배경으로 삼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그것은 총여학생회와는 상관없이 준비하는 독자적 활동일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총여학생회와 함께하는 일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자치단체들의 활동이 강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들 간의 소통의 원활성이 기본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일에서부터 ‘어떤 일을 함께할 수 있는지’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자신들의 활동을 강화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봅시다.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지내왔는지,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올 한해 무엇을 할 것인지 서로에게 알려줍시다. 이를 기반으로 연세 캠퍼스 안에서 다 같이 해야 하며 할 수 있는 일들까지도 고민해봅시다. 지속적인 연대체 모임의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고민의 나눔은 우리의 문제의식을 확장시키고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1 문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비온드", 여성자치언론 "두입술", 여성학 자치도서관 "페미니리", 신과대 여성모임 "물구나무"...